

여름의 끝



최 종 후

목원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이 구에 회자된 작년 여름의 폭염만큼이나 금년 여름도 가뭄과 혹서 탓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 또한 태풍 ‘재니스’와 함께 여름의 끝을 강타한 폭우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입었다. 남한강, 금강하류 주변은 강물이 범람하여 마을과 들녘이 물에 잠겼다. 애써 가꾼 일년 농사를 수확기를 앞두고 망쳐버리게 된 농민의 심사는 미루어 짐작이 간다. 축산농가의 피해도 심각한 듯하다. ’90년 이후 최대의 물난리라고 한다. 세태가 예와 달리 극악해져서 그러한지 일기도 전과 달리 표독스러워진 느낌이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실로 엄격하여,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더위도 이제 한풀 주저앉은 느낌이다. 8월 24일이 處暑였으며, 9월 8일은 白露이다. 處暑라고 함은 여름을 지나 더위가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여 그렇게 불려졌다. 處暑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속담처럼 파리, 모기의 성화도 사라져 가는 무렵이 된다. 그만큼 선선한 절기가

된다는 말이다. 농촌은 한여름의 수고를 지나 다소 한가한 때를 맞이하게 된다. 이를 두고 ‘어정 칠월 건들 팔월’이라고 하는 말도 생겨났다. 계절은 어김없이 순환하며 이제 우리에게 여유로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 아침, 저녁 산 기운도 다르게 느껴진다.

여름의 끝에 서서 지나간 일년을 회고해 본다. 사건사고로 점철된, 고즈넉한 기억이라고는 없는 불안스런 날들의 연속인 듯하다. 일년전의 여름은 언론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다시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소위 ‘지존파 사건’이 뜨거운 여름을 더욱 달군 바 있다. 그와 더불어 ‘인천서 세무비리 사건’이 못 서민의 가슴을 멍들게 하던 시절이었다. 그간 또다시 술한 사건 사고에 시달리고 그에 몰두해서 인지 불과 일년전의 대형사고에 대한 기억이 까마득하다. 당시에 이러한 사건을 두고 언론을 비롯한 주위의 모든 의견 개진자들은 우리 사회의 도덕일탈 현상이 가져온 사회병리현상을 걱정했었다. 생명경시풍조, 물질만능풍조, 과소비행태, 폭력의

만연 등 인간의 세상에서 물리쳐야 할 것이면서도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병리현상을 염려했었다. 그리고 다짐을 했다. 이제 이런 반 인간적인 모습을 없애고 인간의 모습을 담은 세상을 일구어 내는데 너도나도 협심협동하자고

그리고 일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또다시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어처구니없는 대형참사를 겪어야 했으며, 신용사회의 공간을 흔들어 버린 한국은행 지폐유출사고를 겪었다. 그 말고도 정치권의 4천억 비자금설, 사회보호시설에서의 방화사건으로 인한 수십명의 희생 등 서민의 가슴을 멍들게 한 끔찍한 사건사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선진사회를 지향하겠다고 표방한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렇듯 후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건사고를 겪어야 하는지.

결국, 정신문화가 뒷받침 되지 않은 물신주의는 세상을 괴물이 지배하고 마는 세상으로 만들고 말 것임이 우리 곁에서 예증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지금 우리

에게 인간존중의 가치관과 사회적 정의를 회복하는 일 만큼 시급한 일은 없다. 인간존중의 가치관과 사회적 정의의 회복은 이제 국민적, 국가적 과업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철두철미한 인식, 그리고 실천의 방도, 사회 각계각층이 그에 대해 몰두할 때만이 이 땅은 인간의 땅으로 회생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부가 국제경쟁력 강화를 외치며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뜻은 이제 국가생존 문제는 세계라는 틀 속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국가생존전략의 문제이다. 과연 세계 속의 국가생존전략이 이 사회에 만연된 적당주의, 기회주의, 허위의식으로서도 성취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마땅히 인류 보편주의에 입각해야만 한다.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의 땅에서 두루 통할 수 있는 모습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제 생존논리를 위해서도 생각하는 방식, 처신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진실됨, 성실함, 도덕심의 무장, 그것만이 삶의 방편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방도이다.

현 정권의 출범 이후 정부는 이 사회에 만연된 사회병리현상을 타파하고자 개혁기치를 앞세우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개혁의 진행방향에 대한 시행착오 때문에 현 정권 출범초기 국민대중이 보내준 정부에 대한 높은 성원은 이제 냉소적인 태도로 바뀌어 있다. 이는 지난 지자제선거의 결과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개혁이라 함은 托古改制하고자 함이다. '탁고개제'한다 함은 전날의 경험에 의탁하여 제도를 고쳐 나간다는 말이다. 그간 정부는 정권적 차원에서 '托古'하여 왔다. 그것이 민심이반 현상을 가져온 주된 이유이다. 어디에 '托古'할 것인가. 마땅히 민족 운명적 차원에 두어야 한다. 그러한 개혁논리를 펴나가야 한다. 이제 현 정권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섰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부의 개혁의지가 과거의 시행착오를 딛고 더욱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 바탕이 중시되는 세상, 원론이 중시되는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명심하고 명심할 일이다. 잊지 말고 잊지 말 일이다. 이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가야할 곳은 멸망의 길밖에 없는 것이다.

끝으로 생각하자. 氣가 상승일로로 치닫고 호흡이 뜨거운 시대일수록 고요하고 서늘한 바닥이 있어야 한다. 침착과 냉각의 제어력을 자기 안에 가지지 않은 氣의 極으로서의 상승과 호흡의 極으로서의 가열은 결국은 참연한 폐를 가져오고 만다. 극심한 가뭄과 극심한 홍수가 반복될 때 이 땅이 순탄해질 수 없다. 우리는 보다 유연한 사고와 상호의존적 모습을 견지해야 한다. 저 자연의 모습처럼 자연스런 연결고리를 우리 사회의 진화 틀로 삼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자연의 호흡이 뜨겁던 여름의 끝에 서있는 것이다. 이제 자연은 가을이라는 서늘한 바닥을 마련해 두고 있다. 모두모두 돌아앉아 지나간 여름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가을을 맞을 준비를 하자. 다가오는 가을은 우리 모두의 침착과 냉각의 제어력을 키우는 귀한 계절이 되도록 힘쓰자. 한글서체

